

부드럽고 강력한 Power !!! 신모델 Titan 326

폭발적인 215 마력 엔진 파워(최대 10m 포장가능)

대용량의 냉각시스템 채택

전자동 유압식 트랙텐션 조절장치

유압작동방식의 반영구적인 PVC 선루프 지붕



헤인

www.haein.com

| 2004 | AUTUMN



대지 위에 뿌린 씨앗은 진정코 결실을 맺는다.

결실의 무게가 다를지언정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

어제 그러했듯

내일도 그 위에서의 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늘 알토람을 꿈꾸며 ...

글·사진_함영식



Contents 2004 Autumn

27> 26> 24> 22> 20> 18> 16> 12> 08> 06> 04>

비즈니스 심리학

독자나눔터

헤인뉴스

협력사 탐방

특별한 인연

헤인속으로 | 최고의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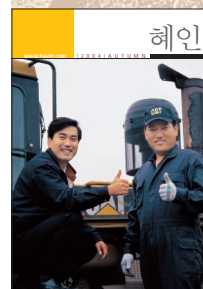
현장 리포트

소식통점보통 | 업계동향

즐거움 여정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세상돌보기



대구시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주)헤인 황내성 과장(좌)과 이선호 기계원(우)
*표지 이야기는 p16-17에 실렸습니다.

세상! ‘편(Fun)’ 하게 즐기자

요즘, 광고나 잡지, 영화에서 유난히 코미디라는 코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 연이은 경기 침체에, 정치당쟁, 각종 사고 및 테러사건에 이르기까지 온통 우울 모드인 상황에서 그래도 ‘웃으면 힘이 나기 때 문은 아닐지. 웃음은 희망이고, 힘이다. 그래서 웃음을 끌어내는 ‘편’ 한 이야기들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글_김광일(자유기고가) · 일러스트_이경국



한 동안 이 사회에 ‘얼짱’, ‘몸짱’ 열풍이 거세 게 일더니 이제 ‘말짱’ 까지 가세했다. 이는, 시각적인 매력으로 어필하던 ‘얼짱’, ‘몸짱’ 등의 인 기열풍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틈새시장을 노린 반란 만은 아니다. ‘재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 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망해온 중요한 가치임이 분 명하다. 그동안 다른 물질적 가치에 비해 좀 품격이 낮고 생산성이 없다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시받아왔을 뿐이지 ‘재미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엔 말 잘하는 남자가 여자를 꼬여 놓으면 잘 생긴 친구가 와서 뺏어간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천만의 말씀. 그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의 외형상 매력에 질려갈 즈음 자신을 끊임없이 재미 있게 해주는 못생긴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개그맨의 부인들이 하나같이 미인이라는 속설을 굳 이 주장하지 않아도 꽤 설득력 있는 얘기임을 많이들 공감할 것이다.

톡톡 튀는 히트 행진, ‘재미’ 상품들

그러나 ‘재미’는 이성 친구를 사귀는 데에만 필요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재미’는 ‘인기’와 직결되고 ‘인기’는 ‘소비’와 직결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조스바’나 ‘꿈틀이’ 등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재

미’를 입힌 먹거리 상품들의 히트 행진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먹거리면 맛만 있으면 된다는, 지극히 상 식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변칙이는 아이디어가 성공 을 끌어낸 것이다. 오감, 육감의 시대에 일감만으로 승부한다는 것은 이제 무모하기까지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재미’를 입힌 상품은 비단 먹거리뿐만 아니라 각 종 문구나 패션상품 등 거의 모든 소비재에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며, 최근엔 ‘펀스메틱(편+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틱)’이라는 신조어와 상품까지 만들어 질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은 열풍을 이끌고 있다. 보 는 재미, 바르는 재미를 통해 화장을 좀 더 즐겁게 하 려는 여성들의 심리를 공략한 전략은 맞아떨어졌다.

‘즐거움’으로 통(通)한다

바야흐로 이 시대에는 ‘편(Fun)’이라는 코드가 새 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의 심각한 소설들은 ‘재 미’를 동반한 인터넷 소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이제는 ‘재미’가, 일을 하다 잠깐의 휴식시간에나 필 요한 것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 깊숙이 침 투하여 근본적인 생산과 소비활동에 직접적으로 관 련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먹거리와 같은 소비재에서부터 심지어는 직장상사까지도 재미있지 않으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편경영’이라고 해서 ‘경영’의 영역에까지 파고들 어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해내고 있는 재미는 어떤 가. ‘편경영’이란 미국에서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영전략으로 직원들의 유머감각을 독려하면서 직 장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주일에 하

루 정도 맥주를 무료로 공급한다던지 사무실 내에서 인라인을 타게 해주는 등, 더 이상 일만 하는 공간으 로서의 직장이 아닌, 기쁨은 함께 즐기면서 놀 수 있 는 공간으로서의 터를 제공해 주는 직장이 늘어나고 있다. ‘잘 놀아야 일도 잘한다’는 슬로건 아래 기업의 창조성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등장하고 있 는 ‘편경영’ 전략은 세계 여러 기업체에서 이미 그 실 효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아직도 ‘주말에 쉬게 해주 니까 알아서 놀아라’라는 전근대적인 생각을 지닌 기업 운영진이 있다면 그 회사의 발전은 누구도 장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같이 놀아주지 않는 회사는 마치 재미없는 직장상사처럼 도태되기 십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달라진 것이 없는 정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 는 경제, 갈수록 다양한 범죄만 급증하는 사회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워진 현대인들에겐 그 어느 때보다 ‘재미’와 ‘놀이’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재 미’ 있는 삶은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거기서 창출된 새로운 에너지는 생산성과 창조 성에 크게 이바지한다. ‘재미’와 ‘유머’를 갖춘 사람 들이 인기를 끌듯 직장이나 사회 또한 그러한 요소들 을 필요로 하고 또 실제로 갖추어 가고 있다. 이 사회 전반에 소리 없이 불어 닥치고 있는 ‘재미열풍’은 빠 빠하고 ‘편’한 세상을 ‘편’하게 끌어들여주는 희망을 담고 있으며 그로 인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 하고자 하는 열망을 내재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이 허 락하는 범위 내에서 재미있게 놀면서 살자. 그것이 바 로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을 잊지 않으면서 말이다.



고교동창밴드 <타임밤(Time Bomb)>을 찾아서

Since 1971, 아직도 우리는 젊음을 노래한다

베이스 안치쌍, 리드 기타 황해석, 드럼 사영수 그리고 보컬 박상범. 이들 4명은 요즘 들어 부쩍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어느 일간지에 50대 고교동창밴드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나간 이후 연습이 어려울 정도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기 때문이다. 지금 아저씨 밴드가 뜨고 있다.

글_PAS(help@i-pas.net) · 사진_이형근



수요일 저녁이면 하남시에서, 수원에서, 오류동에서 그리고 신길동에서 음악이라는 이름을 다시 끄집어낸 아저씨 4명이 신천역으로 모여든다.

“인터넷으로 우리 4명이 가장 가깝게 모일 수 있는 연습실을 찾아보다 이곳을 찾게 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일 7시에 꼭 모여 연습을 하죠.”

아직 일선에서 숨 쉴 틈 없이 바쁜 이들이 어떻게 기타와 드럼채와 마이크를 쥐게 되었을까?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그 시절 여느 고등학생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학생들이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만큼 이들 역시 성공을 위해, 가족을 위해 앞만을 보고 달려왔다. 그리고 훌쩍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4명의 친구 중 안치쌍 씨가 은밀하고도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다.

“작년 6월 동창들 모임 때인가 치쌍이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아마도 우리 모두의 마음 한 구석에 음악에 대한 열정이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었던 거 같아요. 다들 단박에 OK를 해버렸으니. 더군다나 저(사영수)와 해석이는 고등학교 때 밴드 연주 경험도 있거든요.”

보컬은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한다고 팝송을 줄줄이 꿰던 박상범 씨가 맡았다. 그러나 베이스가 문제였다. 찾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안치쌍 씨가 손수 나섰다. 그로부터 몇 달 동안 음악학원을 다녔다. 하루에 9시간, 피나는 노력 끝에 지금은 물오른 베이스 연주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멤버들은 음악을 하고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니더라도(그건 좀 과한 욕심이라며 웃는다) 다시 한 20년 전쯤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을 한다. 처음에 가족들은 무슨 일이 있나 걱정스러웠지만, 의아한 마음 반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남편, 그런 아빠의 모습에 두 손 들고 환영하

며 연습장까지 따라와 응원을 해주기도 한다.

여느 동창 모임처럼 술을 마시거나, 골프로 친목을 다질 수도 있는데 이들은 음악을 선택한 것이다. 과연 타임밤에게 음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30년 전쯤에는 음악 장르나 가사의 의미도 모른 채 흥얼거리던 음악이라고 봐야죠. 그냥 유행 따르던 시절이라고 할까요. 그때에 비하면 이제 내가 직접 선택해서 들으니 깊이 있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는 음악이요? 그거야 무아지경이죠!”

밴드를 결성한 지도 이제 1년이 넘었다. 생활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또 앞으로 예정된 변화도 있다. 우선 동창들이 흥미를 보이며 밴드에 참가할 수 없겠냐는 제의가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오는 10월 15일에는 조그만 라이브 홀에서 콘서트도 열 계획이다.

콘서트에서는 CCR의 곡으로 엘비스 프레슬리, 톰 존스, 엘튼 존과 티나 터너가 리메이크해서 더욱 유명한 ‘Proud Mary’, 영화 ‘친구’ OST에 실려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Robert Palmer의 ‘Bad case of loving you’, 그리고 제1회 MBC대학가요제 중 유일한 그룹사운드였던 샌드페블즈의 ‘나 어떡해’ 등 락과 학창시절 애창했던 포크송 위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애초에는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시원한 맥주 한 잔 하자는 취지였는데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죠. 지금은 카피밴드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시한폭탄이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낼 계획까지 준비해뒀으니.”

연주를 하며 노래를 하는 멤버들의 모습을 보니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그들의 자리를 다시 찾은 듯 편안한 모습들이다. 밴드 타임밤의 비상이 심상찮다. 앞으로 10년 뒤 합동으로 열게 될 환갑잔치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연주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 사영수 씨의 드럼 소리에 맞춰 연습을 시작한다.

고소한 '가을바다' 여는 전어

'추수한다'는 의미의 남부방언 '가실하다'와 '열매 등을 끊는다'는 뜻을 지닌 '갯다' 등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가을. 그래서인지 가을에는 여기저기 잘 어문 그림들이 넘쳐난다. 투명하고, 붉고, 짙 찬 즐거움이 곳곳에 즐비해서, 가을을 찾아 떠나는 길도 한층 맛이 난다.

글 · 사진 김상수(다큐멘터리 사진가)



해질 무렵의 서천군 장포리 갯벌 풍경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 했다. 이 나라 바다에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가을 문턱이면 제 맛이 든다는 대표 어종이 전어(錢魚)라는 애기다. 가을철에 맛이 드는 생선이 어디 이 전어뿐일까만, 연중 나는 전어라도 특히 그 맛이 가을에야 별나게 좋아지는 까닭이겠는데, 전어의 산란기는 봄철이지만 여름 내내 충분히 먹이를 취하고 난 뒤라 그렇다.

전어라는 이름에 얽힌 사연 또한 맛 이야기와 엮이는데, 그 맛이 별나게 좋다보니 사람들이 '돈(錢)' 생각 없이 전어 접시에 달려들어 전어(錢魚)라고 했단다. 서유구가 남긴 <임원경제지>에 들어있는 말이다. 더불어 그 옛날 중국의 화폐모양과 유사하다 하여 그리 불렀다는 얘기 역시 이 가을 생선에 대한 이름 유래라는데, 요즘의 우리 어부들은 그 크기에 따라 큼직한 전어를 '대전어'라 하고 중간치를 '엇사리' 작은 것은 '전어사리'라거나 '새갈치'라 세분해 부르기도 한다.

한편, 예로부터 이런 가을 전어는 기름이 많고 맛이 좋아 갯가 상인들이 염장하여 서울 어물전에 올려 팔았으며, 귀천 없이 누구나 좋아하였다는 것 또한 서유구의 의견. 더불어 전어 생산에 대해 밝힌 <세종실록지리지> 내용 중에는 '충청도며, 경상도 그리고 함경도에서 많이 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알고 보면 이 나라 '삼면바다'에서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구경하기 어렵지 않았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 서해안의 서천군과 보령 무창포, 전남 광양이며 경남 마산 등

에서 초가을이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전어 축제'가 이를 대변해준다.

그저 찾아다니는 게 일인 전어잡이

이렇듯 우리 온 바다에 드는 게 전어이고 보니 잡는 그물도 다양하지만 한데, 먼저 서해안에 서 여전히 현역 노릇을 하는 개막이며 '독살' 같은 전통어법이 그렇고 거기서 조금 발전한 이각망이며 삼각망은 물론이려니와 동해안과 남해안의 정치망에 이르기까지 물때만 기다리는 어업이 첫손에 꼽힌다.

흔히 '가마니로 실어 날랐고, 지게로 저 날랐다'는 시절의 옛 어부들과 함께 했던 주인공 어법들이라 하겠다. 대신 어획량에서는 양조망(석조망)이나 자망 등에 넉넉히 들어 축제 소문 듣고 찾아온 이들이 먹기에 충분하다.

양조망은 어군을 긴 네모꼴 모양새의 그물로 감싸 안듯 둘러싸서 잡는다는 방식. 쓰이는 그물 자체가 긴 네모꼴로 되어있는데, 전어나 멸치 등 어군을 포위하는 과정에서 그물 속에 든 멸치 따위가 그물 위로 뛰어넘거나 물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위협을 가한다하여 돌 '석(石)'자를 써서 석조망이라 불린다.

해마다 여는 '전어축제'를 앞두고 조업에 나서는 서천군 홍원항 전어잡이 어부들의 양조망 조업 모습은 이랬다. 승선 어부들이 포구에 모여드는 시간엔 새벽 여섯 시에서 여덟 시 사이. '화장(막내 어



부' 이 준비한 아침 식사가 끝남과 동시에 앞 바다로 나간다. 홍원항을 벗어나기 바쁘게 본선과 부선은 서로 밋줄로 이어져 고른 항속을 유지해야 하는데, 본선 선장은 GPS와 어탐기를 주시하면서 두 척의 배를 몰아가는 것이다. 물론 전어어군을 찾기 위함인데, 예전의 어로장 역할을 대신하는 어탐기며 전날 혹은 며칠을 계속해서 전어 떼와 만난 해역은 GPS에 기록해 두는 게 상식이나 전날 혹은 전전날에 많이 잡혔다고 하여 매일 그리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 마냥 어군을 찾아다니는 게 일인 전어잡이.

첫 투·양망에 들어선 시간은 오전 11시. 먼저 본선 고물 쪽에서 대기 중이던 어부는 먼저 묶어놓았던 한쪽 고삐 줄과 조임 줄을 부선에 넘겨주고 있었다. 그 일이 끝나자 현복호는 곧 전어 떼의 이동 방향에서 왼쪽으로 가로질러 그물부터 내린다. 불과 10여분 뒤, 투망이 끝났고, 두 척의 어선은 제각기 고삐 줄을 단단히 잡아매고는 몇 분 동안 그물을 끌다가 속도를 줄이면서 뱃머리가 서로 그물 안쪽으로 향하도록 하면서 나란히 붙어 선다. 이제는 조임줄을 감아올리기만 하면 되는 어찌 보면 단순한 조업형태다.

‘참깨 서말’의 가을 맛보기

앞글에서 밝혔듯 초가을이면 갯마을 곳곳에서 싱싱한 전어를 손님상에 올리는 전어축제가 열린다. 그런 마을마다 서울 등 외지에서 고소한 가을 맛이 땀땀 들었다는 그 전어를 맛보기 위해 찾아온 여행객들로 하여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루는 것이다. ‘가을 전어 대가리엔 참깨가 서말’이라는 고소한 맛을 보자고, ‘집 나간 며느리 전어 굽는 냄새 맡고 돌아오는 모양새’를 입맛으로 확인할 양으로 모여든다. 물론 전어 대가리에서 기름을 짜본 사람은 없을 테지만 흔히 신혼의 재미를 비유할 때 ‘개가 쏟아진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그만큼 가을철



잡아낸 전어를 어창에서 퍼내 물에 올리는 어부들

전어의 맛이 뛰어남다는 뜻일 게다.

성질머리가 급하다보니, 서울처럼 산지에서 먼 곳에서는 좀체 싱싱한 전어회 맛보기가 어려웠을 바다를 즐길 겸 어선에서 금방 부린 싱싱한 놈으로 무쳐낸 전어회 무침이며, 다시 바다로 돌아갈 듯 비늘 파르르 떨리는 전어를 그대로 연탄불에 구워 먹어보자고 찾아온 길이었다.

정약전 같은 이도 ‘기름이 많고 달콤하다’는 말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바로 그 전어. 그이는 더 붙어 <자산어보>에 이르기를 ‘흑산도에서도 전어가 나지만 육지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것만 못하다’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이는 먼 바다에서 잡힌 것보다 앞 바다에서 그날그날 잡아낸 싱싱한 놈이 제 맛이 난다는 말이라.

남해안 이곳저곳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전어가 또 얼마나 흔한 생선이었는지를



(위)물오른 싱싱한 전어 (아래)서천군 명소, 춘장대해수욕장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일례로 경남 남해에서는 ‘전어를 지게에 가득 싣고 장에 나가도 보리쌀 한 뿔박과도 바꾸기가 어려웠다’고 하며, 경남 사천에서는 ‘전어 떼가 지나가는 자리에 막대기를 꼽으면 막대기가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물위에서 움직인다’는 허풍 섞인 말도 전해지고 있음이다.

가을의 진미, 소문난 전어요리들

비늘과 지느러미만 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전어는 뼈가 그리 역세지 않아 꼭꼭 씹어 먹으면 오히려 깊은 맛이 난다. 비릿한 듯하면서도 고소하고, 담백하면서도 달착지근한 전어회나 회무침은 뼈째 먹는 이른바 세꼬시(뼈꼬시)의 대명사.

이때는 대가리와 내장을 제거한 다음 가로 방향으로 통째로 찌는데, 내장 가운데 전어의 위장은 따로 모아 젓갈을 담근다. 이게 바로 젓갈 중에 으뜸

이라는 ‘전어뱃젓’이다. 이렇게 회를 떠낸 전어는 고추, 마늘, 된장과 더불어 상추쌈을 하거나 곧바로 초고추장에 찍어먹으면 된다. 물론 가시가 다소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일일이 발라내는 것은 불편하기도 할 뿐더러 회 맛을 반감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편 가늘게 썬 전어를 막걸리로 뽀뽀 각종 야채와 갖은 양념으로 버무리면 바로 전어 회무침이 된다.

전어를 구울 때는 어스어스하게 칼집을 낸 다음 왕소금을 뿌려가며 익힌다. 이때 풍기는 구수한 냄새는 과연 기출한 머느리도 돌아오게 할 정도로 기막히다. 기름이 잘 잘 흐르는 전어구이는 밥반찬이나 술안주 그 어느 용도로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어요리들은 값이 헐한데, 어른 넷이 충분히 먹을 만한 회나 회무침도 2만 원이면 족하고 구이도 그 정도 가격인데 말만 잘하면 몇 마리쯤 더 먹을 수도 있다.

여전한 현역, 독살과 일몰 구경

전어로 든든히 속을 채웠으면 길을 물어 장포리로 건너가야 한다. 교과서에나 나오는 원시어업 ‘독살’이 그곳에서 여전히 현역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갯벌에 돌로 독을 쌓아놓고 밀물 때 바닷물을 따라 들어왔던 갯것들이 썰물 때 빠져나가다가 걸려들게 고안된 독살에서는 ‘차하젓’을 만들어 내는 자그마한 새우 ‘차하’가 잡힌다. 물때만 맞으면 돌그물 ‘독살’에서 갯것을 거두어들이는 노어부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터이고, 안되면 별난 일몰 풍경을 기대하고 잠시 기다려 볼 일이다. 저 먼 바다에서 해가 질 무렵, 가오리 같기도 하고 홍어 같기도 한 갯벌 그림자가 그 해를 향해 나가려는 몸짓을 발견할 수 있을 터이니.

대규모 골프장 건설, 과연 경제는 뜰까?

얼마 전 정부가 경제육성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골프장 허가 관련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말 그대로 경제육성의 기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폐해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과연 어떤 배경과 어떤 의도를 담은 정책인지, 또 그 파장은 어찌 될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글_ 이제경 (매경이코노미 차장대우 cklee@mk.co.kr)



2010년이면 주말에도 1인당 10만 원 이내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1인당 25만 원 이상을 들이면서도 골프장 부킹을 하지 못해 골프를 포기해야 하는 요즘을 생각하면 골퍼들에게 천국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동남아 등지에서 치는 게 더 싸다는 점에서 국외 골프 원정을 떠나는 골퍼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터. 국내에서도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싼 값에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예상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재 건설 중인 골프장과 건설 추진 중인 골프장만 별 탈 없이 완공되더라도 골퍼들의 부킹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앞으로 골퍼들에게 골프천국이 열린다면 골프장 운영업체 입장에선 동시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일 터.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토목과 조경 등의 관련 업종은 호경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인허가를 준비하는 우후죽순 건설 계획들

2010년까지 얼마나 많은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을까. 골프장은 규제사업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건설할 자금이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떨어져야만 가능하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전망한

2010년까지 들어 설 골프장 수는 472개(18홀 기준)에 이른다.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189개(18홀 기준)를 제외하면 274개가 2010년까지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74개가 현재 건설 중이고, 200개가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274개 중에 전남 해남지역에 추진되는 10개 골프장이 포함돼 있다.

골프장 건설 붐을 일으킨 주인공은 이현재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다. 이현재 부총리가 지난 7월 허가 대기 중인 230개 골프장 건립 신청건을 일괄 심사하여 4개월 이내에 조기 허용해 단계에 따라 건설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게 계기가 됐다.

이현재 부총리의 골프장 건설 옹호론이 전해지면서 지자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대규모 신규 골프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은 지난 8월 31일 540홀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골프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소재 골프장보다 무려 3배 정도 큰 규모. 2006년 완공될 새만금 유역에 복합관광레저단지를 개발하고 동진강 인근 갯벌 간척사업이 끝나면 800만 평에 540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드는 게 전북이 내놓은 골프장 건설 구상이다. 경남 역시 최근 2~3년 사이 '1시군 1골프장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척지를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흘러나온다. 간척지를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곳은 현대건설과 토지공사. 현대건설은 서산 간척지 일부를 관광 휴양형 복합도시로 만든다는 생각이다. 김포 간척지를 갖고 있는 토지공사도 레저복합단지 개발을 구상하면서 골프장 건설도 넘본다. 현대건설 등이 간척지를 활용해 골프장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배경은 9월 22일부터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되기 때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토지규제 등을 완화해 지역 특색에 맞

는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간척지를 골프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곳은 농림부이나, 아직까지는 반대 입장이어서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정말로 경제가 뜰까

앞에서 말한 전북의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을 비롯해 간척지의 골프장 건설 등은 2010년까지 들어설 총 473개 골프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이들 골프장까지 합치면 500개를 훌쩍 뛰어 넘는다. 과연 우리나라 인구와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370개(18홀 기준) 골프장을 적정 규모로 추정한다. 만약 500개가 들어선다면 130개가 초과공급 된다는 얘기다.

만약 골프장이 건설 중에 부도를 내거나, 운영 중에 망하게 되면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된다. 일본은 90년도 후반에 경기진작 차원에서 대규모 골프장 신설을 허용했다가, 2000년 들어 대규모 골프장 부도로 홍역을 앓고 있다. 많은 부도 골프장이 미국의 투자회사인 론스타에 팔렸다. 지자체가 앞장서 대규모 골프장을 짓고 간척지 등이 골프장으로 탈바꿈했을 때 초과공급에 따른 부작용도 불을 보듯 뻔하다. 아마도 정부가 이런 혼란이 예상되는 데도 무분별하게 골프장 건립 허가를 내줄 것 같지는 않다.

이현재 부총리는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 데도 왜 대규모 골프장 신설 허용 발언을 했을까. 그 발언엔 전북의 새만금 유역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과 간척지에 골프장 건립까지를 허용한다는 속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허가를 기다리는 골프장에 한해 되도록이면 단계적으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인허가 단계를 축소시켜준다는 의도쯤으로 해석하는 게 옳아 보인다.

무엇보다 이현재 부총리의 생각은 골프장 건설



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투자를 일으킬 수 있는 대안으로 골프장 건설을 생각한 것 같다. 지방에 골프장을 건설하면 쌀 개방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를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자체도 골프장을 허가해줬을 경우 상당한 세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250개 골프장이 만들어진다면 건설비용으로 13조 원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까지 합치면 27조 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골프장 건설은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은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환경 단체

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골프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은 농산물 재배 때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긴 하다. 환경파괴 측면에서도 초지와 농경지 등을 활용하면 환경파괴 없이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부도 등으로 골프장 건설이 중단되거나, 잘 관리되지 않았을 때 주변 지역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수요를 파악해 적정 공급을 찾아라

적정 골프장이 어느 정도인지 정밀하게 분석한 뒤 골프 관련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방공기업 등이 회원제가 아닌 퍼블릭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할 때엔 규제완화를 통해 허가

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부에선 초지에 골프장 건설을 허용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미니골프장 건설 기준 완화도 요구한다.

강원도 철원군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를 제기했다. 현재는 표고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5부 능선 이하에서만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는 표고를 현행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다. 높은 산이 많은 강원도 특성을 감안해서라도 8부 능선에도 골프장을 짓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산림청은 높은 곳에 골프장을 건립했을 때 예상되는 산사태 등을 감안해 5부 능선 이하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 골프장 신설 방안이 전해지자 제주도 골프장 운영업자들은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도 대부분 제주도 골프장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신설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골프장 부정이 힘들고, 1인 기준(비회원) 골프비용이 20만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골프장 공급 확대는 바람직해 보인다. 이미 골프채 등 골프용품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폐지됐다. 골프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일지 모르지만, 골프용품을 만든 쪽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골프용품에 대해 더 이상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명분이 없어졌다.

더구나 외국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마당에 국산 골프용품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부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1회 골프 비용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골프가 돈 가진 자들의 운동만이 아닐 것이다. 골프를싼 값에 즐기 위해 국의 원정 골프를 떠나는 사람만도 어림잡아 연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이 동남아 등지에서 뿌리는 돈만도 한해 2천억 원이 넘는다. 이들이 동남아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다면 외화를 낭비하지 않아서 좋

고, 국내 일자리가 생겨 실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산을 깎지 않고 노는 초지 등을 이용한다면 환경파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규모 골프장 건설 허용에 앞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적정 규모 골프장 수요를 파악한 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적정 규모 안에선 규제를 완화해 건설비용을 낮추는 방향이 옳다. 건설비용이 낮아지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골프가 명실상부하게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제	퍼블릭	합계
운영 중	156	33	189
건설 중	56	18	74
추진 중	162	38	200
합계	384	89	473

* 47개의 18홀 군 골프장 포함
전남 해남지역 10개 골프장 건설계획 포함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 참조



최고의 위생매립장, 최고의 해인

25톤 도저 2대가 뽕뽕하게 돌아가던 작업이 1대로도 충분히 대체된 반면 처리 용량은 늘어나고, 완벽한 복토 작업으로 인근 주민들과 발생이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 또한 말끔히 해소됐다. 2004년 대구시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오늘 같은 변화 뒤에는 (주)해인이 있었다.

글_이언영 · 사진_이승혁

“덜컹덜컹..., 우르르..., 부아아아...”

대구시 서구, 달서구의 경계에 놓인 고도 299.6m의 나지막한 산, 와룡산. 말밭굴 모양의 능선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15만 평의 구릉 위에서 트럭과 도저가 덩치만큼이나 큰 굉음과 매캐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작업에 한창이다.

대구시의 전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곳 대구시청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하루 일과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5시에 끝이 난다.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 수만 해도 하루 500대가 넘는다. 1톤에서 10톤에 이르는 이들 트럭에는 254만 대구시민의 고단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전해진다.

트럭에 실려 온 폐기물 더미를 옮기는 건 도저의 몫. 매립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복토(쓰레기 더미 위에 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덮는 것) 작업에도 이 도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도저의 성능은 곧 매립장의 작업 능력과 직결된다.

해인을 통한 터닝포인트

대구시 위생매립장의 작업 능력은 2003년을 기점으로 몰라보게 향상되었다. 작업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폐기물 양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더 잘 해내는 똑똑한 도저의 도입에 있다.



(주)해인 황내성 과장과 대구시 매립장 하중호 주임

국내 유일의 매립장 전용 도저, (주)해인의 캐터필라 도저가 바로 그것이다. 캐터필라 도저의 삼각형으로 설계된 삼각 트랙은 일자형에 비해 바퀴 부분에 걸리는 폐기물의 양을 현저히 줄여주어 시간 당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 마디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도저입니다. 지금까지 써오던 일반 도저와는 차원이 다르지요. 매립장 전용 도저 아닙니까? 게다가 대구가 섬유의 도시 아닙니까? 섬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해인의 캐터필라 도저만한 게 또 있을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일단 처리 용량이 크고 무엇보다도 견고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항상 한발 앞선 해인의 서비스가 더해져서, 거의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매립장 하중호 주임의 캐터필라 도저 자랑이다.

7년을 기다린 보람, 기대 이상의 캐터필라 도저

대구 위생매립장에 캐터필라 도저를 들여놓기까지는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96년 처음으로 입찰에 도전했지만, 당시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가 입찰’의 벽에 번번이 쓴잔을 마셔야 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이곳의 선정 기준도 변했다.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 것을 찾기보다는 효율에 그 가치를 두기 시작한 것. 현장의 능력을 높이고 잔 고장으로 인한 업무 로스를 줄일 수 있는 든직한 장비를 원했을 때 바로 캐터필라 도저가 있었던 것이다.

“작년에 드디어 캐터필라 도저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성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던 거지요. 결국 우리 해인이 선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뻐 사무실 사람 모두가 만세를 불렀다 아닙니까.”

해인 대구지점 황내성 과장의 설명이다.

사실 캐터필라 도저는 타사의 도저에 비해 고가임

에 분명하다. 하지만, 기존의 도저와 단순 가격 비교를 할 수는 없다. 기존에 25톤 용량의 도저 두 대를 가동하던 현장에서는 캐터필라 도저가 들어온 이후로 25톤 중 한 대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비중 있고 부담 가는 작업은 거의 캐터필라 도저가 처리하고 다른 한 대로는 부수적인 작업을 처리하다 보니 잔 고장으로 인한 업무 로스도 많이 줄었다. 때문에 올해로 경력 15년인 이선희 기계원의 캐터필라 도저 사랑은 남다르다.

“말해 뒀습니까. 성능이면 성능, 운전석 시설이면 시설, 힘이면 힘,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다 아닙니까. 무엇보다 충격 흡수가 잘 되어선지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립장을 살리는 기술력

이곳에서는 하루 1400톤의 폐기물 중, 캐터필라 도저가 900톤을 처리하고 다른 도저가 500톤을 처리한다. 또한 캐터필라 도저는 복토 작업에도 뛰어나다. 매립장 측이 복토 작업에 유난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환경 친화적인 매립장 조성에 있다. 복토 작업을 얼마나 촘촘히 하는가에 따라 매립장은 죽은 땅이 될 수도 있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땅으로 거듭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30분에서 40분 이내에 대구 시내 전 폐기물이 이곳으로 유입될 만큼 도심과 가깝고, 심지어 산 너머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음에도 민원 등의 별 다른 문제가 없다.

대구시 위생매립장의 오늘은 최고의 장비를 제공한 (주)해인의 해인, 현장 위주의 기기를 도입한 매립장 측의 배려, 그리고 뛰어난 장비를 제대로 구사하는 현장 기계원의 기술력이 삼위일체 되어 빛어낸 하나의 혁명이다.

JUNGHEINRICH 삼방향지게차

1953년 창사 이래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융하인리히(JUNGHEINRICH)사는 작업 환경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창고형 물류장비와 서비스를 전 세계 77개국 120여 개국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유럽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자랑하는 세계 제 1위의 창고형 물류장비 생산업체이다.

글 (주)헤인 이진호 과장

	MODEL	CAPACITY	LIFT HEIGHT	BATTERY	MOTOR
MAN - UP	EKX410	1,000kg	7,750mm	48V 575AH	AC
	EKX513	1,250kg	9,250mm	80V 420AH	
	EKX515K	1,500kg	11,250mm	80V 560AH	
	EKX515	1,500kg	14,250mm	80V 840AH	
MAN - DOWN	EFX100	1,000kg	7,000mm	48V 460AH	AC
	EFX125	1,250kg	7,000mm	48V 575AH	
	ETX125	1,250kg	10,000mm	80V 420AH	
	ETX150	1,500kg	13,000mm	80V 700AH	

◎ JUNGHEINRICH 삼방향지게차의 특 장점



AC MOTOR

기존의 삼방향지게차는 DC Motor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융하인리히(JUNGHEINRICH) 삼방향지게차는 업계 최초로 AC Motor를 장착하여 공급하고 있다.

기존의 DC Motor는 소음이 크며(75~85 Db), 주기적으로 카본 브러쉬(Carbon Brush)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AC Motor는 코일에 의해 자장으로 모터를 구동시키기 때문에 브러쉬가 필요없고 고장율이 적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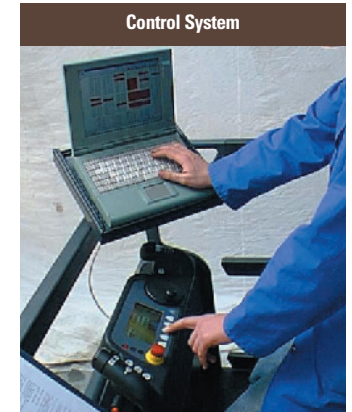
또한 'Energy-Reclamation' 기능(마스트 하강 및 장비 브레이크 작동시 소모된 배터리의 30%가 다시 충전되는 기능)이 기본장착 되어 에너지 효율을 30% 이상 향상시켜 준다.

Control System

기존 삼방향지게차의 Control System은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방식이었으나 융하인리히(JUNGHEINRICH) 삼방향지게차는 PC(Personal Computer) 방식으로 변경되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고장율이 적다.

장비의 고장발생 시 엔지니어들은 작업현장에서 휴대용 노트북과 장비를 케이블로 바로 연결하여 고장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수리가 가능하다.

또한 현장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제작사와 연결하여 제작사를 통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작업의 편의성

접이식 시트와 조절식 운전대는 운전자에게 최적의 운전실 환경을 제공하며, 대형 LCD 계기판을 통하여 작업자에게 구동 바퀴의 위치, 현재의 인상 높이, 배터리 용량, 주행속도 및 고장 지시용 문자 등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제공한다.



3륜구조

4륜구조의 삼방향지게차보다 3륜으로 구성된 융하인리히(JUNGHEINRICH) 삼방향지게차는 회전 반경이 적어 공간 확보가 더욱 용이하고 운전이 편리하다.

4륜구조의 경우 얼핏 보기에는 3륜구조보다 안전하게 보이나 삼방향지게차의 경우 쇼바장치가 없기 때문에 3륜구조가 더욱 안전하며, 또한 원심력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 삼방향지게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과장 (02-3498-4612)

고효율 저비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결 - 코엑스 발전실

글 임춘재 · 사진 이주웅

(왼쪽부터)(주)헤인 이주일 주임과

코엑스 발전실 유택현 팀장, 강기순 차장, 최성태 대리

서울 삼성동 코엑스를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코엑스 발전실은 여러 매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같은 이유로 얼마 후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받을 예정이다. 전기를 보내고 쓰는 일이 주 업무인 발전실에서 에너지 절약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터. 코엑스 발전실에 숨겨진 비결 속에서 헤인을 만날 수 있었다.

상 주인구만 2만 명, 유동인구는 이를 훨씬 웃도는 15만 명. 무역업을 주로 하는 세계 유수의 바이어들이 주요한 사업상 미팅을 하루에도 수천 건씩 벌이고, VIP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곳. 때문에 코엑스 무역회관 본관빌딩은 항상 비상체제다. 특히 전산실과 관련된 거래가 태반이라, 작은 정전이라도 생긴다면 막대한 손실이 따르게 마련. 이 빌딩이 생긴 이래 가장 초긴장 상태인 곳은 발전실 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껏 단 한번의 사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공인 '에너지 절약 모범 발전실'로 뽑히고 있기도 하다. 발전실이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되새겨보면 그 비결이 자연 발전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

88년 2대의 디젤엔진발전기를 시작으로, 99년 아셈빌딩을 확충하며 3대의 가스엔진발전기를 갖

춘 코엑스 발전실은 빌딩 규모론 국내 최고의 발전실이다. 관리 포지션은 무역회관과 아셈타워, 전시컨벤션, 코엑스몰로 디젤엔진이 대당 2,500kw, 가스엔진은 대당 2,900kw의 전력을 생산하는 터라 5대를 모두 풀가동한다면 한번에 생산해내는 양이 13,700kw. 의정부 사용량의 1/10에 달하는 수준이며, 조그만 시골 면을 2개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름만 발전실이지 실상은 발전소를 능가하는 셈. 기본 성능에서 60~70% 정도를 생산해내는 일반 발전기라면 꿈도 꿀 수 없을 텐데, 100%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헤인의 캐터필라 발전기이기에 가능하다고 유택현 팀장은 말한다.

"처음부터 헤인에 발전기를 수주했습니다. 공개 입찰 형식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전기하면 단연 헤인이 최고잖아요. 발전기도 좋지만, 발전기에 대한 노하우나 전문 인력이 헤인을 따를 곳은 없죠.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이제껏 고장이나 운전 하자 없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해 왔기 때문에 무사히 에너지절감계획을 달성할 수 있었고, 덕분에 한전으로부터 인센티브도 받게 됐습니다. 우수한 발전기로 여러모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전력난이 반복되는 7~8월 하절기엔 발전

기를 돌려 자체 전력을 생산하는 병렬 운전을 통해 kw당 48원을, 연간으로는 4억 정도를 절감하기도 한다. 코엑스 자체로는 전력난 없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한전 차원에선 전력 보유량을 늘릴 수 있어 이득이 되는 것. 초기 비용이 들긴 하지만, 힘도 좋고 효율도 높아 다른 발전기와는 비교도 안 된다고 발전실에서만 20년 경력의 베테랑 강기순 차장도 유 팀장과 같은 의견을 내놓는다.

"헤인 직원들을 코엑스 직원이라 생각합니다. 워낙 성실한데다 기동성도 있고, 바쁠 땐 와서 직접 운전도 해주는 마음씀이 고마워요. 거래처라기 보단 파트너나 가족이죠. 실력들도 최고라서 헤인 사원들로부터 기술도 전수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발전기 운전이나 유지보수 실력이 꽤 좋아졌고요. 연말에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를 해 재계약을 맺곤 하는데, 그 점수가 보통 80점 정도면 통과되거든요. 그런데 헤인은 매년 90점 이상입니다."

올해 선로 용량을 키우는 공사를 비롯해 내년에는 더 많은 시설 보완으로 에너지 절감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코엑스 발전실. 호형호제의 막역한 헤인과의 파트너십이 내년도도 무리없는 결실을 맺어 줄 것 같다.

최고의 민족, (주)헤인 C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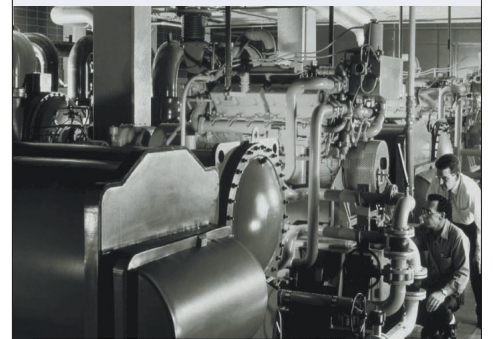
캐터필라 발전기나 산업용 엔진, 혹은 선박 엔진을 구입하셨다면, 여러분은 신뢰성 있는 경제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사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자원 등을 (주)헤인으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CSA(Customer Support Agreement : 유지 관리 및 보수 대행 프로그램)는 고객을 위해 유용한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CSA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며, 유지보수 대행, 수리 대행, 관리 대행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기 점검인 고장 예방 유지보수 작업부터 고장 이후의 수리나 일괄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는 고객의 장비나 설비 상태 또는 직원의 능력 여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은 고객의 동의 하에 신중히 결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CSA는 고객이 설비 관리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본연의 사업에 전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장 예방 유지 보수 프로그램

- 지정된 방문 주기로 현장서비스 제공
- 고도로 훈련된 기술을 가진, 전문 기술자의 지원
- S.O.S 오일 분석과 전문기의 진단에 의한 엔진 수명의 극대화
- 제공된 모든 서비스의 보고서 제출
- 발전기 관리 / 정비 일지 보관
- 캐터필라 공구와 최신 순정 부품으로 안전 보장 및 최대 성능 보장



함께 해서 든든한 항해, 목포한국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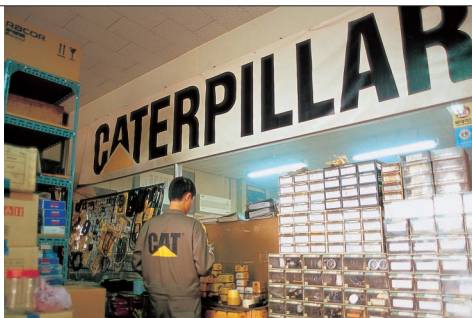
어느 곳보다 더욱 판매 시린 삶의 낭만이 그득한 곳, 목포. 신안 토박이 김삼성 사장과 해인의 만남은 그래서 더욱 깊디깊은 인연의 맛이 우려난다. 믿음으로 인연을 맺어, 다시 그 인연을 믿음을 통해 든든한 파트너십으로 키워낸 목포한국엔지니어링을 찾았다.

글 임춘재 · 사진 이승혁

전국 10개의 (주)해인 해상엔진대리점 가운데 전남 서부지역의 유일한 대리점인 목포한국엔지니어링. 때문에 목포를 비롯한 해남, 영광과 진도, 완도, 홍도, 흑산도를 잇는 신안지역이 모두 목포한국엔지니어링의 서비스 권역이다. 하지만 다도해란 지역적 특성과 영세 개인 어선이 많아 영업보다는 수리업이나 서비스 차원의 업무가 더 많은 편. 게다가 최근 악화된 경기와 어획량 저하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목포한국엔지니어링은 최근 영업실적이 가장 좋은 대리점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신안지역 토박이인 김삼성 사장이 11년간의, 외항선 기관장으로서의 승선생활을 접고 육지에 터를 잡은 것은 1988년. 오랜 바다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선박수리업부터 시작했다. 직접 몸으로 얻은 실력이었기에, 짧은 기간에 인정을 받았고 목포 인근에서 알아주는 수리업체가 되었을 때, 해인으로 부터 일명 '러브콜' 을 받았다. 그것이 1991년이다.

당시 목포지역은 몇 개 안되는 연락사무소와 본사를 통한 직접 영업을 하던 터라, 효율성에서나 기동성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결국 판매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지역 수리업체나



목포한국엔지니어링 실내 전경

해상엔진에 관심이 있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캐터필라 엔진을 소유하고 있던 한 선주로부터 김삼성 사장을 소개받았다. 엔진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력은 물론, 바다에서 키운 배포도 남달랐던 김 사장은 이미 선주들 사이에서 이 분야의 알아주는 '장이' 였다. 이처럼 연락사무소로 출발해, 96년 정식 대리점으로 전환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포한국엔지니어링의 성장은 처음부터 예고되었던 셈이다.

현재 관리 물량은 90여 척. 관공선이 30%, 차도선 25%, 일반어선이 그외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인과 인연을 맺은 후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해 점점 규모가 커졌고, 특히 해인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접목함으로써 보다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IMF 때의 해인을 잊을 수 없다는 김 사장.

해상엔진에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이면서 여전히 스스로 기술자를 자칭하는 김삼성 사장



“조선소도 여럿 부도나고, 문 닫는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때 성과가 컸습니다. 96년에 영업해서 97년에 수주하고 납품하다 보면, 98년에 수금을 하게 되는데, 당시 달러당 원화가 많이 올라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해인이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윤 포기는 물론 엄청난 환차손에 따른 적자를 끌어안으면서 대리점이나 소비자에게는 최소한의 부담만 주고 엔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줬죠. 덕분에 이미지 손상도 없이, 무사히 IMF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후 (주)해인과 목포한국엔지니어링의 믿음은 더욱 탄탄해졌고, 선주들 사이에서도 두 업체에 대한 인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리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해상엔진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 양질의 엔진을 선호하게 될 즈음에는 캐터필라 엔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중고 엔진의 물량이 많은 편이지만, 영세한 지역인 데다 과거 자동차 엔진으로 대체하던 시기를 생각한다면 큰 변화. 캐터필라 엔진은 중고 엔진을 사용해도 큰 고장이 적고, 내구성 면에서도 정비를 했을 경우 신품과 유사한 출력을 내는 것으로 유명해, 현재는 물론 장기 수주 전망은 더욱 밝다.

“수리업이 바탕이 돼서 대리점을 시작하게 됐으니, 여전히 수리업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수리 고객을 많이 확보해도, 엔진 판매에 도움이 됩니다. 캐터필라 엔진뿐만 아니라 타 중고 엔진이나 타사 엔진들까지도 우리가 완벽하게 수리해주면, 처음에는 수리업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수리업체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엔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캐터필라 엔진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십 년 고객이 됩니다.”

‘한 순간 실수를 하면 십 년 고객도 떠난다’는 원칙 아래 당장의 것을 보지 않고 손해 보는 듯한 영업을 한다는 김삼성 사장. 그의 생각대로 고객은 ‘믿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울리는 그의 휴대 전화에선 얼마 전에 만났던 일가친척이 등장하는 듯하다. 엔진 이상을 묻는 선주들에 대한 응대지만, 거친 듯 하면서도 훈훈한 전라도 사투리가 결코 남을 대하는 게 아니다. 바다에서 11년, 그리고 바다의 인연을 이어 다시 육지에서 17년. 한 평생 ‘기관장’이란 한 이름으로 뛰는 김삼성 사장에게 해인은 인생이란 거친 항해에 든든한 뜻이 되고 있고, 해인에게 김 사장은 믿음직한 개척선이 되고 있었다.

금호타이어 중국 난징 물류센터에 납품계약 체결



(주)헤인 산업장비 영업팀에서는 금호타이어 중국 난징 물류센터에서 사용할 삼방향지게차(EKX515) 5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지난 7월 29일 체결하였다.

이는 2003년 금호타이어 평택센터에 공급한 융하인리히(JUNGHEINRICH) 삼방향지게차 ETX-kombi150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장비에 대한 성능과 헤인의 A/S 지원체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한 삼방향지게차(EKX515)는 현재 중국 난징에 건설중인 금호타이어 1차 물류센터에서 사용할 예정이며 추후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추가 공급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효과적인 장비의 A/S를 위해 이번에 공급되는 장비의 A/S는 융하인리히(JUNGHEINRICH) 중국법인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B-시리즈 스키드러더 무료체험 이벤트



(주)헤인은 현재 진행 중인 캐터필라 굴삭기, 헬로더의 이동 시연회와 함께 B-시리즈 스키드러더 출시를 기념하여 무료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행사장비인 236B는 고용량 정품 에어컨을 탑재하고 기존 A-시리즈보다 18% 이상 향상된 정격 출력 70마력의 터보엔진을 장착하여 파워풀한 작업이 가능하며 25톤 트럭상차는 물론 각종 작업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어떤 현장에서도 맞춤 작업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 광주, 대구, 제천, 안동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동해, 원주, 충주, 포항, 진주, 인천, 전주 등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헤인 홈페이지 Renewal 작업 완료



(주)헤인은 고객과의 효율적인 Communication과 보다 알찬 정보 제공을 위하여 홈페이지 Renewal 작업을 실시하여 지난 8월 30일 정식 오픈 하였다. 새로워진 홈페이지는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제품의 사양과 보다 다양한 제품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상담'을 통해 담당직원과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료실' 및 '재무정보'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http://www.haein.com>

헤인 6 sigma - 발전과 성공을 위한 전진



헤인에서 6 Sigma 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다. 많은 경영혁신 운동의 실패를 뒤로 한 채 시작한 운동이었기에 회사 및 직원의 기대 또한 남달랐을 것이다. 한 명의 Black Belt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 직원의 1%에 해당되는 세 명의 Black Belt와 프로젝트를 통해 수료증을 받은 9%에 해당되는 27명의 Green Belt가 각자의 분야에서 6 Sigma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SDA(Service Differentiation Accelerator) 6 Sigma Project 종료식을 7월에 가졌으며 6 Sigma Project가 종료된 후에도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Black Belt와 Green Belt, 그리고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총 2개의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어 재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고 6개의 프로젝트가 실행 중에 있다.

친환경 콤팩트 - 중고압 VHP750WCAT



전 세계적인 환경보호 움직임에 발맞춰 미국과 유럽의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에 적합한 엔진으로 변경된 중고압 콤팩트 VHP750WCAT이 현장에서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각종 기초공사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VHP750WCAT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격 압력 14Kg/cm² (200psi)으로 고객들이 공기압에서나 풍랑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친환경적인 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엔진보다 연료 소모율이 훨씬 좋아져 요즘 높아진 연료비에 대한 최선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독자나눔터

요즘 한창 사이월드에 빠져 있던 나를 반성하게끔 한 '세상돌보기' 코너가 참 와 닿았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을 미니홈피상에서 만나고,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홈피를 꾸미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리다 사이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의 현실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거듭 들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 2가 127번지 동성산업(주) 총무과 / 계획영

천안의 한 직원으로부터 명함 한 장 달라는 부탁에 아무 의미 없이 드리고,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헤인'이라는 사보가 왔더군요. 반갑기도 하고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던 그분의 말에 설마 했는데 이런 조그만 신용 하나가 헤인을 더욱 더 믿음이기는 회사로 만드느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충남 서산시 동문동 1006-8 여명길 52 / 남제일

헤인 사보를 늘 생각 없이 사무실에 던져놓았습니다. 여유(?)가 있어 무심코 봤는데 때늦은 후회감이 들었습니다. 큰(?) 내용은 없지만 일상에서 잊고 사는 마음 따뜻하게 하는 글귀가 많아 직원들에게 그동안 있던 헤인 사보를 읽어보라고 권해주었습니다. 사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헤인 직원 여러분 건강하세요.

대구 남구 봉곡2동 1206-11 현대빌라 102동 301호 / 박상기

옛날 할머니댁에 가면 빼그덕거리는 나무로 짜여진 툇마루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눈을 갖다 대고 밑을 쳐다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고향의 향수 풀풀나는 나무 냄새, 주위에서 서걱거리며 먹던 찌자와 물에 말은 밥.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잊지 않고 행겨주시는 헤인이 있어 힘이 납니다.

경기양주시 옥정동 92-3 성립산업 (파티클보드코팅) / 김현아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헤인 사보를 즐거운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간 읽은 소감에 대해서 몇 자 적습니다. (주)헤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설장비 중에 소형장비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합니다. 장비를 구매할 때 비교될 수 있도록, 특히 타사와의 장·단점 등을 실었으면 합니다. 물론 사보인 만큼 (주)헤인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들도 돌러가며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항상 신경 써주시는 헤인의 A/S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최고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캐터필라를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평안산업 장기철 공장장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지면 관례로 편집한 내용입니다.

임직원 소식

승진을 축하합니다.

인력개발팀 대리 김덕영

육상엔진팀 대리 김일래

I/R장비영업팀 대리 장양병

부품기획마케팅팀 대리 이찬재

부산영업본부 대리 황보근

동해지점 대리 김동현

자녀출생을 축하합니다.

엔진서비스팀 2004.07.12 백승삼 주임 득남 (백규현)

엔진서비스팀 2004.07.13 최성규 사원 득녀 (최유진)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에게는 캐터필라 마크가 새겨진 '나이프와 전등세트'를 드립니다.

문의 : 이승일 과장(silee@haein.com) 02-3498-4524

비즈니스 심리학

공격이 최선의 방어

글 하지현, 『통쾌한 비즈니스 심리학』 저자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곧 모 대기업에서 입찰공고가 날 것이라는 정보를 친구로부터 은밀히 입수한 양 부장. 이 소식을 듣고 양 부장이 김 대리에게 사전조사를 한 후 제안서를 준비해 한 번 크게 성과를 올려보자고 하자 김 대리가 보인 반응이다. “부장님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요. 기존 고객만 잘 관리해 이탈만 막아도 이기는 거라고요. 괜히 에너지만 분산시키는 일을 왜 해요?”

양 부장은 그래도 한 번 준비해보라고 타일러 돌려보냈지만 요즘 회사 전반에 깔린 이런 분위기가 못마땅할 따름이다. 최근 몇 년간 급속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두려움과 위축’의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다.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내 개인적 잣대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수치심을 느끼지만, 내 잘못으로 인해 외부의 권위적인 존재로부터 혼이 날 것이라는 감정은 두려움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수치심보다 먼저 생긴 감정이다. 부모로부터 혼이 나지 않으려는 마음이 두려움의 원천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 싶다는 동물적인 방어본능도 두려움에 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않다보니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질책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데에도 위축이 된다. 또 그런 자신의 위축감을 다양한 이유로 합리화하고 그 안에 안주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조직 전체에 이런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만연되면 그 조직은 정체되고 완만 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두려움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나도 모르게 막연히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기보다 그 실재를 확인하려해야 한다. 마치 해리 포터가 다른 마법사들이 ‘그’라고 애매하게 부르던 볼드모트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듯이. 그리고 나서 내 행동의 원천의 일차적 동력을 ‘실수해서 혼이 나지 않는 행동’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개인적 성취감과 욕망으로 자리바꿈 해줘야한다.

2002년 월드컵 16강전인 이탈리아 전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자. ‘1 대 0’으로 뒤지던 상황에서 후반전 15분이 넘어가자 히딩크 감독은 수비수들을 빼고 공격수 황선홍, 이천수, 차두리를 투입하는 과감한 승부수를 날렸다. 그 결과는? 설기현의 동점골과 안정환의 골든골로 8강에 올라갈 수 있었다. 만일 다음날 언론의 질타가 두렵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수비를 강화해서 추가실점이나 막다가 마지막 기회를 보자’는 합리화의 마음이 강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외부의 비판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 자기만족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의외의 선수교체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의 전환이 두려움과 위축 바이러스에 어느새 감염되어 있는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킬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이기려는 게임을 해야지 1 대 0으로 지긴, 3 대 0으로 지긴 건 지는 것이 아닌가? 아무도 패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다만 동정은 할 수 있겠지만. 동정 받는 패자가 되기보다 승자가 되기 위해 게임을 시작했다는 걸 아무리 수세에 몰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좋은 글귀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노력해야 합니다.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듯 내 마음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간수할 것 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소중한

아름다운 기억과 칭찬의 말 등은 간직해도 좋지만,

필요도 없는 비난이나 고인의 기억은

쓰레기나 잡동사니 치우듯이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고 마음행복하다.”

- 박유천의 《당신의 마음을 위하여》 30쪽

2 0 0 4

A U T U M N



애 독 자 카 드

● 두개의 그림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5곳을 찾아 표시해주세요. 보내주신 분은 추천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독자나눔터의 신고 싶은 사연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우 편 엽 서

보 내 는 사 람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유효기간
2003.7.15~2005.7.14
서울시서초우체국
승인 제1823호

(주)헤인 사보편집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1 3 7 - 1 3 0